

原油 4천만배 럴備蓄

有事時對備 87년까지

정부는 유사시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原油비축물량을 오는 87년말까지 4천1백만배럴로 크게 늘리는 한편 금년부터 原油외에 석유제품도 비축키로 하고 금년에 輕油 99만1천배럴과 LPG 4만8천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油開公이 마련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입원유(배럴당 70센트) 및 LPG(t당 169달려)에 부과 징수하는 3천6백83억6천만원의 올해 비축기금 조정액 가운데 1천8백37억8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처음으로 경유 99만1천배럴(수입물량기준 30일분)과 LPG 4만8천톤(16일분) 등 석유제품을 비축키로 하는 한편 민간 비축시설을 활용, 2백만 배럴(4일분)의 원유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油開公은 정부의 가스보급 확대방침에 따라 LPG는 금년에 4만8천톤, 86년 10만6천톤, 88년 21만5천톤, 90년 33만5천 톤으로 비축물량을 계속 늘려 오는 90년에는 수입물량기준 90일분을 확보키로 했다.

技術振興審議會 발족 위원장에 科技處長官

정부는 기술혁신정책을 凡部處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하고 거국적 기술개발체계의 확립에 의한 기술주도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기술진흥심의회를 설

치·운영키로 확정, 16명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심의회 위원장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임명 됐으며 상임위원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문교부, 상공부, 동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차관과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경제수석비서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으로 구성됐다.

이 심의회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되고 심의회아래 관계부처 국장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회의 위원장은 간사가 겸직하게 된다.

江陵水電計劃 확정 용량8만kw. 89년 준공

한전이 80년부터 추진해 오던 江陵수력발전소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발전소 건설계획에 의하면 江原道溟州郡城山面五峰里에 시설용량 82,000KW(41,000KW×2기)의 流域變更 린수路式 수력발전소를 건설, 89년 6월에 준공하게 된다.

오는 7월에 對備工事에 들어가게 될 이 발전소 건설공사는 南漢江上류인 江原道平昌郡 道岩面水

下里에 높이 87m, 길이 356m의 린을 건설, 五峯里 까지 15km의 수로를 뚫고 650m의 落差를 이용하여 연간 1억7천9백만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太白山脈을 뚫어 南漢江의 물을 東海岸으로 유역을 바꾸어 放流하게 될 江陵水電이 준공되면 전력계통상 피크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原子力科 50명 修了 韓電, 工專委託教育生

충전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韓電이 82학년도에 蔚山工專에 위탁교육한 70명의 韓電직원이 1월 23일 졸업식을 갖고 배출되었다.

이번에 배출된 졸업생은 原子力科 50명, 電氣科 16명, 機械科 4명 등인데 原子力科 모상만씨가 교육감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졸업생 전원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韓電은 이 졸업식과 별도로 위탁교육수료식을 갖고 성적이 우수한 原子力科 모상만, 電氣科 송명수, 機械科 황수돈 등 세 사람을 표창했다.

韓重, 原子力 9·10號機 S/G, 原子爐 가공시작

경북 울진에 建設中인 원자력 9·10호기용 S/G Lower Part 3기와 Reactor Vessel Upper Part 1기 등이 지난 2월16일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 들어와 가공에 들어갔다.

이들 주기기는 창원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되어 오는 8월중순 경 울진현장으로 인도될 계획이다.

朴正基會長 등 참가 日本原產의 年次大會에

3월13일 부터 3일간 日本 東京에서 열리는 제17회 日本原產 年次大會에 朴正基會長 등 우리나라 대표 13명이 참가했다.

이 年次大會는 日本原產이 原子力開發利用上의 重要課題에 대하여 그 解決策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인데 이번 大會의 基調테마는 「低經濟成長下에 있어서의 原子力產業의 課題」로 설정되었다.

이번 大會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正基(韓國原子力產業會議會長)

李炳暉(科技處 原子力常任委員)

鄭根謨(韓國電力技術(株) 社長)

文熙晟(韓國電力公社 理事)

金承根((株)大宇ITT 社長)

金鍾珠(PBNC 집행위원장)

高重明(現代建設(株) 副社長)

李京雨(韓國檢查開發(株) 社長)

이상찬(大宇엔지니어링(株)理事)

尹在烘(大宇엔지니어링(株)理事)

馬景錫(뉴텍 인터내셔널 社長)

鄭汝奎(韓國에너지研究所 部長)

鄭炳玉(韓國電力技術(株) 課長)

PBNC組織委員會로 개편 委員長에 李炳暉박사

PBNC준비위원회가 3월 9일에 열려, 3월 17일의 제4차 집행 및 기술계획위원회 합동회의 준비 상황 등 당면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現 준비위원회를 組織委員會로 개편하고 委員長에 韓國原子力產業會議 副會長인 李炳暉박사를 선출하였다.

技術振興有功者 12명에게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2월 22일 열린 技術振興학대회의에서 造船, 情報 산업등 10개분야에 공이 많은 12명에게 훈장을 수여 했다. 叙勳者는 다음과 같다.

▲ 國민훈장목련장=盧賢模(서울대교수) 金完柱(한국과학기술원) ▲ 銅塔產業勳章=李昇撓(삼성반도체통신) ▲ 鐵塔산업훈장=閔季植(대우조선), 李世赫(현대중공업), 俞殷在(포항제철) ▲ 錫塔산업훈장=姜哲鎬(동양나일론), 金鎮龍(대림산업) ▲ 산업포장=全泳載(쌍용컴퓨터), 韓基千(화천기계), 姜伊俊(한국센트랄자동차)

產業體 업종별 對策班 에너지節約 대책회의 發足

법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절약 운동의 모체가 될 에너지소비 절약대책회의(위원장崔東奎동자부장관)가 2월 16일 발족됐다.

에너지절약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및 업체를 망라하여 구성된 이 대책회의는 이날 첫번째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에너지 소비절약 실적을 분석,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대책회의는 최근의 국제 에너지사정 등을 감안, 지금까지의 단순절약·自律절약 위주에서 앞으로는 원천적절약·강제절약으로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부터는 남부해안

및 濟州道를 포함한 전국 일원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斷熱시공을 의무화 하고 산업체의 절약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會長에 趙完圭博士 科總定期總會선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2월 20일 하오 여의도 全經聯회관에서 8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趙完圭박사(56·서울大자연대 교수)를 선출하고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시책의 진흥촉진 및 정책연구, 지속적인 국민생활과학화 풍토조성에 두기로 했다.

이 기본방향을 주축으로 한 올해의 주요사업은 ▲ 제9차 국내외 韓國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개최 ▲ 학회학술활동 조성사업 ▲ 과학기술문헌 발간 ▲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보교환사업 등 8개 사업이다.

리비아 發電要員訓練 現代그룹 2千명 대상

現代그룹이 해외로부터 教育訓練을 수주하는데 성공 했다.

2월 15일 現代가 밝힌 바에 의하면 現代그룹산하의 建設, 重工業, エンジニア링 重電機, 綜合商社 등 5개기업은 지난 82년 10월 전소시업을 형성, 리비아 水電力廳으로부터 턴키베이스로 탈염발전소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건설계약에서 총발주금액 5억6천만달러중 10%인 5천6백만달러를 건설참여자와 건설완료후의 운영관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사용하게 된다.